

## ‘일본의 우경화,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

### -제5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3국 석학들 열띤 토론-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와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일본의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현대한국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제5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한중일의 새로운 리더십과 동아시아의 질서재편’을 주제로 4월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은 2008년 4월 동서대의 주관으로 출범한 이래 한중일 3개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올해의 심포지엄은 작년 8월 이래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중국어: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2월 발족한 일본 자민당 정권의 아베 신조 수상이 개헌을 통한 군비강화, 일본의 역사부정 발언 등 우경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등 동아시아 국가 관계의 불안정 요소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림으로써 한중일 3국 참가자들의 발표 및 토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장제국 총장은 주최측을 대표한 개회사를 통하여 “5회째를 맞는 이 심포지엄이 한중일 동북아 핵심국가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영향력 있는 중요 학술회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총장은 그동안의 심포지엄에서 ‘이명박 행정부와 한중일 관계’ (2008년 부산),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과 한중일 관계’ (2009년 9월 서울) 등 각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3국 관계를 조명해 왔음을 지적, 이번에도 한중일 3국에서 각각 새 정권이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간의 새로운 관계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심포지엄이 되었음을 역설하였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지난 세기 아시아에서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일본 일부 지도자의 시대착오적, 역사퇴행적 언행은 동북아의 새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국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개탄스럽다”고 최근의 아베 일본 수상의 일련의 발언을 지적, 비판했다.

특히 윤장관은 4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던 한일외무장관회담을 취소한 가운데 심포지엄에 참석, 스피치함으로써 국내외 특히 일본, 중국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아베 수상의 일련의 보수·우경화 발언에 대한 비판과 각국의 대응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집중되었다. 한국측 발표자인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이 과거를 사죄한 담화 등을 스스로 부정하면 한일관계에서 공든 탑의 기초가 무너져 다시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측 토론자인 와카미야 요시부미 동서대 석좌교수(전 아사히신문 주필)도 “일본 정권 담당자들이 사상적으로 상당히 우경화 돼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전체가 우경화되면 이번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측 발표자인 사회과학원 표우젠이 수석연구원은 대립 중인 중일관계의 장래에 대하여 “일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중국도 한국도 매우 부정적이며 시진핑이 어느 시기에 중일관계를 회복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신문과 SBS, 채널A등 TV, 그리고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NHK, 후지TV 등 일본 미디어 및 중국의 신화사, 인민일보 등 국내외 취재진들이 관심 있게 취재 보도했다.

제5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명단(가나다순)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전 외무장관)	박준우 (전 EU대사·연세대 객원교수)	이성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정구중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 철 (라오닝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현대한국연구센터장)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페이링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집행연구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현대한국연구센터 부센터장)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	이홍규 (동서대 교수)	카모 토모키 (게이오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와카미야 요시부미 (동서대 석좌교수·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벨로)	장 결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집행연구원)	한석희 (연세대 교수)
표우젠이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	장제국 (동서대 총장)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개회사

장제국(동서대 총장)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2008년 4월에 출범하여 벌써 제 5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심포지엄은 한중일이라는 동북아시아 핵심국가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해법을 찾아보는 영향력이 있는 중요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한중일의 새로운 리더십과 동아시아의 질서재편'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지난 해 말 이후, 공교롭게도 한중일 3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북한에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 동북아시아는 유래 없는 새로운 리더십 진영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권의 탄생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한 불투명한 위기의 도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불모로 한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과 중국간의 마찰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베정부의 보수적 행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계에서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각국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고, 한중일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3국간 첫 국제회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썩, 한중일 3국이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에 걸맞는 보다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동아시아의 안정적 질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질서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환영사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오늘 이 국제 학술회의가 매우 시기 적절하게 열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한 세 나라의 관계는 특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새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우리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이 한일회담 반대 전국민 시위가 일어났던 해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최근의 일본 정부 일각에서 말해주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내년 (한일관계) 50주년을 새로운 국면으로 유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도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교섭을 통하여 상호이해의 진전을 통하여 이 어려운 갈등들을 풀어내고,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다시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의 마당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동서대, 게이오대,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 그리고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의 네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학술대회가 바로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포럼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로, 그리고 상호 협력과 공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나라가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희망의 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여러분께서 이성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화해의 길을 찾아주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거듭 올리고자 합니다. 환영합니다.

축사

윤병세(외교부 장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일의 새로운 리더십과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일 3국 협력은 지역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역사와 영토갈등, 군비경쟁, 핵위협, 과거사 문제 등으로 역내 국가간 협력에 많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아시아에서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최근 일부 역내 정치지도자들의 시대착오적, 역사 퇴행적 언행은 새로운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역내 국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성찰이 유럽의 화합을 이끌었고 오늘날 유럽연합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번 심포지엄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동북아 3국에서는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였습니다.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3국 협력의 발전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소중한 바탕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비슷한 것에서 다름을 찾다



표정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현재 한일 관계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과거사에 대해서 합의되지 못한 논쟁들이 우리 연구자들을 난감하게 만든다. 두 나라는 너무나 가깝기도 하고 아주 요원하고 멀기도 하다. 이러한 것이 비단 역사나 정치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현상을 읽어가다 보면 꼭 어느 한 지점에서는 일본이라는 물줄기에 이르르게 된다. 나는 현대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30년대를 전공하다보니 일본이라는 화두를 피해갈 수는 없는 형국이다. 1930년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당시의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는 시절이었다. 일본의 문화정치가 가속화되던 시기이니 정서를 다루는 문학의 세계가 어땠을까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잠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연구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일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내 연구의 일정 부분은 항상 일본과 한국의 상호 연관성이다. 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아이들의 놀이세계이다, 10여 년 전 나의 아이들은 탐블레이드, 바쿠칸, 류희왕, 파워레인저, 유캔도, 포켓몬스터, 닌텐도 등의 놀이와 게임을 열심히 보고 따라했다. 이 놀이들은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흉내 내면서 모방놀이를 펼쳤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스토어트 컬린이라는 학자는 한국, 일본, 중국의 놀이를 비교하면서 분석했다. 나 역시 아이들의 놀이세계와 신화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신화를 비교 연구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두 나라의 신화 비교는 한일 상호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단초였다.

나루토, 이누야샤, 명탐정 코난, 바둑왕,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아이들과 함께 보았다.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너무나 많은 요괴들이 살고 있었고 나의 연구는 일본의 요괴와 한국의 도깨비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헤이안 시대 교토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요괴가 이제는 무생물에다 불일 정도로 광범위한 광의의 문화적 개념이 되었다. 현대사회는 요괴를 가지고 노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의 도깨비도 그러한 진화를 겪고 있다. 도깨비마을, 도깨비 축제, 도깨비 애니메이션, 도깨비 공원 등 다양한 도깨비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도깨비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의미체계를 가진다.

그와 비슷한 시절 한창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우연히 장보고를 읽어주다가 아이에게 위인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살해된 장보고가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나는 장보고를 새롭게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장보고를 문화적인 사람으로 읽어나가는 연구를 시작했다. 장보고와 관련된 <완도장보고 축제>를 필두로 장보고 관련 문화 유적지를 아이들과 전부 답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만난 것은 일본이라는 물줄기였다.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의 미일 대사였던 라이샤워가 쓴 글과 일본의 연인 스님이 쓴 <입당구 법순례행기>를 만났다. 장보고의 자료는 한국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몇몇 저서에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도 <삼국유사>는 후세인들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길잡이를 제시해준 셈이다. 나는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 교토의 정수사와 연력사를 방문했고 그곳에 모셔진 신라사부라고 불리는 장보고의 흔적을 느껴보았다. 참으로 황홀한 연구 경험이었다.

장보고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나는 동시에 한국의 축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때 일본의 마쓰리는 나의 또 다른 연구 관심거리가 되었다. 일본의 삼대 마쓰리를 필두로 많은 마쓰리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연구 중이다. 특히 고클 송배하는 홋카이도의 아이누 족의 고클축제는 우리의 고클 신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쓰리에는 항상 송배하는 신이 존재하는데, 이 신들의 유래가 우리의 고대신화와 역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 한일차세대포럼 때 방문했던 카와고에 마쓰리 회관과 고마 신사는 그래서 내게는 더욱 흥미롭고 의미가 있었다.

나에게 일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40여 년 전 만 해도 다른 나라였던 오키나와이다. 유구 혹은 류큐왕국이라는 나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홍길동의 울도국이라고도 여겨진다. 이곳의 왕손 홍기와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제주도도 비슷해 보이면서 일본 속의 다른 나라처럼 존재하는 오키나와는 문화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우리의 고대 문헌에 유구가 등장하는 서적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불리는 에이사라는 노래는 우리의 아리랑처럼 이상향을 갈망하는 노래이다. 험난한 시절을 견디게 한 이 노래는 우리의 아리랑 고개를 생각나게 한다. 이 또한 연구 중이다.

현재 나는 육당 최남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남선은 1900년대 초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한 우리나라 지식인의 필두로 꼽힌다. 그가 일본에 가서 한 업적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빼앗긴 <삼국유사>를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고 연구하게 한 것이다. 1927년 <계명>이라는 잡지에 <삼국유사해제>와 함께 <삼국유사>를 소개하면서 그는 단군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조선의 신화와 일본의 신화를 비교하면서 왕성한 연구를 펼쳤다. 육당은 신화라는 보편성을 연구하면서 자기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일본 연구는 늘 우리에게 양면성을 준다. 비슷한 점을 강조하다보면 민족주의에 저촉되고 다름을 강조하다보면 세계주의에 저촉되기 쉽다.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서로에게 분명히 중요한 존재들이다. 놀이, 마쓰리, 축제,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역사적 인물, 지리적 조건, 신화적 상상력, 요괴, 도깨비 등 우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 것에 주목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의 나라를 이해하는 징검다리로 학문은 그 존립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소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박근혜 정부는 냉전붕괴 이래 가장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기에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20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권력내부에서 매우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의 왜곡현상으로 심각한 불안정에 처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북한체제의 안정을 최우선 하는 중국의 변수 부상은 국제사회의 피로감과 함께 20여년을 끌어온 북핵 협상의 환경변화를 말해준다.

박근혜 정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모색하려 한다. 동아시아 질서가 미·중간 경쟁, 군비경쟁, 역사·영토 갈등 등 전례 없는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는 판단 하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악화되고 있는 한중일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일단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하지만,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역사갈등 극복과 화해·협력의 미래

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이 한미양국은 물론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중추(linchpin)이라는 인식하에 단순한 군사 관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다.

박근혜 신정부는 급변하는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한국의 국익을 여하히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것인가?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차원의 중층적 네트워크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미중경쟁, 중일경쟁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진출에 있어서 한국은 중대한 열쇠를 쥐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경험은 많은 개도국들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갖는 한국만의 소프트파워이다.

## 2013년도 월례연구회 개최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에서는 2013년도 계속해서 한일관계의 제 1선에서 활약하는 저명인을 초청한 월례연구회를 개최해 갈 예정이다. 이하, 3월 21일(목)에 개최된 제 1회 월례연구회(강사 :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및 5월 2일(목)에 개최된 제 2회 월례연구회(강사 :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의 발표요지를 게재한다.

### 제1회 월례연구회 발표요지 :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편집장(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전후 한일관계를 4기로 나누어 생각한다. 제 1기는 1965년의 국교정상화전까지의 20년으로, 이승만정권의 반일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에게는 한국에 대한 반성의식은 없었고, 구보타발언등의 문제도 있어 교섭은 결렬되었다.

제 2기는 국교가 정상화된 65년부터 80년대까지이다. 군사정권인 한국과 아직 반성이 부족한 일본이 상호 간 입장과 불만을 억제하며 반공과 경제라는 이해로 연결되고 있었다. 경제협력금이라는 이름의 배상금이 지불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대에는 방일에 의한 히로히토 쇼와 천황과의 역사적인 회견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가끔씩 모순이 분출하는 형태로 김대중 피랍사건이나 역사교과서문제 등이 일어났다.

제 3기는 9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로, 냉전붕괴를 배경으로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일본에서는 55년체제가 붕괴되고, 95년의 무라야마담화 등의 사죄가 반복되었다. 한국의 민주화와 일본의 사죄에 의해 자연스러운 관계가 구축되어 갔다. 98년의 김대중대통령과 오불이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일본 측의 '사죄'와 한국 측의 '화해' 표명이 명확히 기록되어, 월드컴공동개최, 한류붐으로 이어졌다.

제 4기는 21세기 이후의 새로운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의 시대이다. 90년대에 사죄를 반복해 온 일본 측에 사죄의 부담이 가중되어 갔고, 한국에서는 민주화에 의해 독도 및 중군위안부의 문제가 분출되었다.

### 제2회 월례연구회 발표요지 :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국 특명전권대사(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간, 소비세와 금리의 인상, 발본적인 개혁을 미룸으로써 경기회복의 기회를 철저히 놓쳐 왔다. 엔고현상, 높은 법인세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늦은 대처, 노동규제, 환경규제, 전력부족이라는 산업의 6종난 해결을 위해서도 '아베노믹스' 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 '아베노믹스' 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을 3개의 화살로 삼고 있는데, 금융완화는 이미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재정정책도 4~5월에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고충에 따른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참의원선거 후가 되겠다. 지금 현재, 구미(歐米)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어 주식 거래량도 세계의 약 10%까지 회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둔화는 '아베노믹스' 가 아니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 EU의 성장둔화에 인한 영향이 크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헌법논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의 일본 정치가 교착상태에 있는 것을 타개하고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이 전전(戰前)과 같은 국가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해양권익의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 등, 일본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일본은 현실적인 안전보장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이 반전(反戰)을 제창하면 세계는 그것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하는 평화이상주의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위대도 현실에 입각한 위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한일 양국의 신경권이 탄생했는데 양국관계는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2010년, 간 나오토 정권은 국내 보수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라야마담화보다 진전된 '합병 100년의 담화' 를 내놓았지만, 합병의 불법성을 다루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한국 측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것이 일본의 우파에 힘을 불어넣어 아베 신조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진 면도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에도 얼마 전까지 아베정권의 탄생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베가 자민당총재가 되고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에는 독도, 센카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동아시아의 돌풍이 영향을 미쳤다. 우경화의 예로 영토문제, 역사인식, 헌법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각각 다른 요소가 있다. 국민층에도 각각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국가 전체로서는 건전성이 있다. 극단적인 부분만을 보고 위험한 우경화로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심화할 뿐이다.

30년만에 한국에서 살면서 예전과는 달리 선진국으로 들어섰다는 실감이 들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다양성에도 놀랐다. 한일 간의 '비방식 전쟁' 은 무의미한 것으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전략적인 상호 양보가 필요하며, 양국의 신경권이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고 민중을 설득할 수 있는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출구는 보일 것 같지 않다. 일본은 전후(戰後) 가와노담화, 무라야마담화 등을 내고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착실히 걸어왔는데, 한국 측에서는 평가되고 있지 않다. 한국 측은 일본의 재군국화를 비판하는 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본이 평화국가, 민주주의국가가 되었다는 현실은 직시해 주기를 바란다. 독일과의 비교에서 사죄의 시기도 늦고 표현의 방법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은 일본으로서 확실히 사죄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한국은 사죄를 계속 요구할 것인가라는 마음이,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서로 너무 감정적인 반발로 부딪히는 것은 이제는 끝났으면 한다.

2000년대에 들어 한일 국민교류는 급속히 성숙해 왔다. 유사성을 가지면서 서로 한층 발전한 각종 문화를 갖춘 양국은 문화교류의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관계에 있다. 일본에서의 '한류붐' 은 그러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한일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일본이 참가를 표명한 TPP는 '국제표준만들기' 를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장이며, 한국도 일본과 함께 규정만들기에 참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향후 20년 간의 세계의 인프라스투는 71조달러로 한일이 인프라스투의 과당경쟁을 멈추고 협력하면 쌍방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정원(사회·젠더)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yunia1979@gmail.com

제주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에 대한 논쟁이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들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지금도 투쟁 현장에서 주민들은 "제발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공권력에 호소한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려줌과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야기다. 해군기지 건설은 사실상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외면된 채, '국가안보' 라는 이름하에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연구를 위한 핵심 주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못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정, 국방부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결론짓는 반면, 주민들은 여전히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현실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이를 위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의사소통' 구조에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비단 해군기지 건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찬반대립 과정에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준다. '의사소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비판,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첩바퀴 돌듯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고지마 다이키(언어·문학)

규슈대학  
비상근 연구원  
daiki1105@gmail.com

조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단어에 결합하여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조사의 고유한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단독으로 단어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둘 이상의 조사가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사끼리의 결합을 조사연속구성이라 한다.

조사끼리의 결합은 모든 조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결합 순서에도 조사마다 제약이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조사는 한국어의 처소격조사와 주격조사가 결합한 구성으로, 이러한 결합은 일반적으로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언어환경에서는 이 예외적인 결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선행 명사구가 공간개념어일 경우에 착목하여 지금까지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어 온 조사연속구성이 사용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예외적인 조사 결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요소와 서술어의 어휘적 특징, 그리고 문장의 유형과 함께 조사를 삭제하였을 때의 문장 성립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처소격조사와 주격조사에 의한 조사연속구성은 한쪽이 필수적으로 결합하고, 다른 한쪽은 수의적으로 결합하였다. 필수적으로 결합한 조사는 '강조'의 의미 첨가 또는 선행 명사를 '구체화'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필수적으로 결합하는 조사는 격조사로 기능하고, 수의적으로 결합하는 조사는 일종의 양태조사로 기능함을 시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선영(문화·예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pung@sm.ac.kr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인기 게임인 <서든 어택(suddenattack)>의 게임 이용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게임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쟁, 폭력이라는 남성친화적 주제와는 거리가 멀게 다루어져 온 여성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형태에 주목하여 이들이 지배적인 게임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는지, 또는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 내는지 그 움직임을 확인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여성 및 남성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을 방향성, 내용, 목적, 의사표현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지배적인 게임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현실 생활에서는 함부로 사용하기 힘든 욕설, 폭력적인 언설, 비난 등의 발화가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게임 이용이 단순히 기계의 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콘텐츠의 성격과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그리고 관계망을 넘나들면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문화적 의미들이 어우러지면서 형성되는 행위임을 잘 보여준다.

현재 연구자는 왜 게임 가상 공간에서 폭력적인 발화 및 행위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폭력'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왜 규칙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마스기 유리(민속·인류)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사학전공 박사후기과정  
it047040@ed.ritsumei.ac.jp

본 연구는 근대일본의 '매춘(売春)'에 대해 그 실태와 주변사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대일본에 있어서는 특정의 업종·구역에서의 매춘영업을 허가하는 제도-즉, 근대공창제도(近代公娼制度)가 깔려있고 이에 따라 매춘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창제도의 뒷면에는 그 범주에서 벗어난 위법한 매춘(사적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는 이러한 '공(公)'과 '사(私)'의 양자를 포함해서 비로소 매춘의 전체상이 그려지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1894년(明治27)년에 발빠르게 공창제도를 폐지한 군마현(群馬県)을 대상으로 하여 종래의 연구에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던 사적 매춘의 실태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군마현(群馬県)에 있어서의 사적 매춘은 음식점이 손님과 작부(作婦)·예기(芸妓)와의 매춘교섭의 중개점(仲介点)으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성행위의 장(場)은 다른 음식점·여인숙(旅人宿)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적 매춘은 손님과 사창(私娼)이 함께 외부로 나가는 것에 의해 각종 접목이 연계되는 일종의 네트워크적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창(公娼)과는 대조적으로, 사창(私娼)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의해 매춘이 성립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적 매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창의 자유로운 행동은 손님 측에서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수요(需要)'의 관점에서 '매춘'을 통해 사회동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35회 동서사랑방

#### ‘중국 새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중관계 전망’ 강연(요약)

◇연사=표우젠이(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주임):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와 2013년 3월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총리의 중국 새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2011년 중국의 GDP는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 일본은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 한반도, 러시아와의 도서분쟁, 영토분쟁을 심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장기적인 한반도 식민통치, 중국 침략전쟁, 만주국 건립, 중국 장교봉과 노몬한에서의 러시아 공격 등 역사적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의도와 관련하여 중국 새정부는 조어도에 대한 일상적 순찰 구상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며 각종 대응 조치를 취해 역사인식, 역사교과서 및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일본의 행동에 반대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중국 새정부는 단기적인 이익을 따지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논의를 통해 전략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는 중미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 새정부는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화해를 권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외교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러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외교가 '무언가를 한' 외교의 효과를 뛰어 넘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특히 2008년 이후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전기를 맞이한 듯 보였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향후 2~3년 내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어떻게 한반도의 정전 메커니즘을 영구적 평화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제7회 동서대학교 일본어 스피치콘테스트 개최



5월 13일(월),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제7회 동서대 일본어 스피치콘테스트'가 개최되었다. 대회장에는 일본어학과의 학생을 중심으로 약 100여명의 청중이 모여 다양한 내용의 일본어스피치에 귀를 기울였다.

외부의 심사위원에 의한 엄정한 심사결과, 최우수상(동서대총장상)에는 일본어학과 3학년의 차지연씨가 선정되었다. 차씨는 '나는 고무신입니

다' 라는 테마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성의 복잡한 심정을 정교한 일본어로 이야기하여 회장에 모인, 특히 여자 대학생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차씨는 금년 가을에 개최예정인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최 일본어 변론대회에 동서대학교 대표로 출장할 예정이다.

또, 우수상(일본연구센터 소장상)에는 김봉주씨(테마: '나는 성장기')가,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유예림씨(테마: '짜사랑')가 선정되고, 박근욱씨, 민지희씨, 추서연씨의 3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국제교류기금의 오카다 유미코 교수님은 "교과서에 있는 어휘만이 아니라 최근 일본인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풍부한 어휘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또, 청중과 하나가 되어 스피치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총평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인 학생에 의한 일본어스피치 외에도 일본인 유학생에 의한 한국어스피치 (이토 슈세이씨, 소마가와 나츠미씨) 및 '동일본 대지진부흥지원 키즈나프로젝트'에 본 대학 대표로 참가하여 피해를 방문한 이광성씨에 의한 현지보고도 이루어져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 제36회 동서사랑방

#### ‘한미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대일·중 정책 방향’ 강연(요약)

◇연사=박준우(연세대 객원교수·전 EU 대사):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방미 주요성과에 대하여 귀국 후 5월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섯가지로 요약, 설명했다.

①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의 채택·글로벌 전략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축'(Lynchpin)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 ②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미정부의 지지를 얻어 대북한 정책에 확고한 공조를 확보한 것 ③미 상하원의 한미동맹 60주년 결의안 통과 ④3억 8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북한 리스크를 불식 ⑤스미소니언 박물관 만찬·한복외교 등 문화 측면 외교 성과.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의 영어연설 등으로 '세련된 외교'를 평가받았다. 한편 2



년간 연장된 원자력 협력 협정 교섭 및 2014년 12월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문제 등은 앞으로의 박대통령 정부의 큰 과제로 남았다.

박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방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의 방중'(윤병세 외교부장관 KBS 대담)을 통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낼 계획으로 있다.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력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응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

대일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 및 일본 정치가에 의한 잇단 과거사 관련 발언에 과잉 반응은 자제. 그러나 윤외교장관 방일 중지 등 원칙에 입각하여 할 말은 하는 정책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의 방일 시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연기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도 불투명. 정상회담의 순서로는 2011년 12월 교토회담이 마지막이므로 일본 총리의 방한이 먼저가 될 수도 있다.

### CAMPUS Asia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가 본격가동

#### -중국학기(2~4월)를 마치고 일본학기(5~7월)이 스타트-

한중일 3개국 정부공동추진사업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있는 동서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 광둥외어외무대학의 사업단(프로그램명: '동아시아 차세대인문학 리더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 트라이앵글 캠퍼스')가 2013년 2월에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를 시작했다. 4년간의 교과과정의 중핵이 되는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는 2~3년차의 2년간, 3학기제(중국학기: 2~4월, 일본학기: 5~7월, 한국학기: 9~11월)로 실시되어 3대학에서 10명씩 선발된 총 30명의 학생들이 3개국의 캠퍼스를 2년의 기간 동안 2번 이동하면서 각 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 중국 학기를 마치고 4월 29일(월)에 귀국한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일본학기의 개강에 맞추어 5월 6일(월)에 다시 일본으로 출발했다.

2013년도 커리큘럼은 언어습득에 주안을 둔 프로그램구성(언어:70%, 인문학:30%)으로 되어 있어 참가학생들은 정규과목으로서 개설된 언어과목 외에 랭귀지 익스체인지, 국제학생기숙사에서의 공동생활 등을 통하여 상대국가의 2개 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월부터 시작된 일본학기에서는 리츠메이칸대학이 30명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제공하고 3개국 학생전원이 취침을 함께하는 것으로 밀도있는 이문화간 접촉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언어적·문화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습득이 기대된다.

금년도는 언어과목 외에 각국의 문화, 역사, 사회연구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강의형식'의 역사과목에서는 동시통역이나 모국어로 진행되는 보강이, '강의+체험학습형식'의 문화과목이나 '조사+발표형식'의 사회연구과목에서는 순차통역이나 현지학생에 의한 언어서포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과목은 각 대학이 자국의 역사 수업을 제공하여 연간 3개국의 역사수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학기개강대학은 '대면형식'으로 다른 2대학은 '원격강의형식'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사회연구과목에서는 3개국의 학생들이 6명씩 그룹을 지어 매주 주어진 테마로 필드워크를 시행하여 수업 중에 현지의 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언어 및 인문학 과목을 1년간 이수한 후, 2014년도 커리큘럼에서는 전공과목의 비중이 높아져 학생들에게 현지의 언어로 전공과목을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한중일 3대학에 설치된 특색있는 다양한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 한일차세대학술포럼

### 10주년 기념 대회 개최 및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9호 발간

다가오는 6월 29일(토), 30일(일)의 양일간, 올해 개교한 동서대학교 신캠퍼스(센텀캠퍼스)에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계승과 창출'을 테마로 한 이번 대회에는 한일 양국의 대학에서 약 250명의 대학원생 및 지도교수가 참가하였다. 국제관계, 정치·법률, 사회·젠더, 종교·사상 등 10개의 분과로 이루어진 분과별 발표회에서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선발된 80명의 차세대 연구자가 등장하여 다양한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은 2004년에 발족한 이래, 한일관계에 갈등이 발생해도 중단되는 일 없이 매년 양국 간 대학을 왕래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10년간 걸쳐, 한일양국의 차세대 연구를 선도하는 차세대 연구자에게 연구발표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초기 대회에 참가한 선배들은 이미 대학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 한일 인문사회계 대학원에서 연구자를 지향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본 포럼은 등용문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10주년 기념 대회 상세 기사는 '뉴스레터 제25호'에 게재 예정)

또한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모은 포럼논문집『차세대 인문사회연구』가 매년 3월 말에 발간되고 있다. 본 논문집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게재논문은 한국의 공적기관의 인정을 받은 업적으로 인정된다. 제9회 대회의 발표자들의 논문이 게재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9호가 지난 3월 31일에 발간되었다.

#### 《한일차세대학술포럼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요》

일시 2013년6월29일(토) 국제학술대회, 30일(일) 조사여행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공개토론테마 '계승과 창출'

분과 국제관계, 정치·법률, 경제·경영, 역사, 언어·문학, 사회·젠더 I·II, 종교·사상, 민족·인류, 문화·예술

특별대담 와카미야 요시부미(전 아사히신문 주필/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심규선(동아일보 논설위원 실장)

협찬 KOREA FOUNDATION, JAPAN FOUNDATION, 동서대학교

후원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일한문화교류기금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9호 게재논문》

No.	집필자	소속	논문명
1	本多倫彬	慶應大	日本の国際協力における非政府組織 - NGOと外務省の連携に係る制度の変容を手掛かりに -
2	太田壯哉	明治大	取引限定的満足の現代的意義
3	殷晓星	立命館大	江戸中後期における「六論」関係書の受容
4	張秀熙	東亞大	귀환 학병과 어머니 -잡지《학병》에 재현된 '군인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5	韓銀煥	全南大	지역 정책갈등에서의 지연 전략 -무안-광주공항 통·폐합을 둘러싼 갈등 사례분석-
6	福田洋佑	専修大	吃音者を抑圧する「私たち」のあり方
7	佐藤太久磨	立命館大	「世界共同体」の論理、二つの文脈 -明治期政治思想の一断面-
8	曹容成	全南大	베틀 하마와키 아쿠시마쓰리(別府浜脇薬師祭り)에 나타나는 약사여래신앙
9	荒木潤	韓国学中央研究院	일제식민지기 경주 일본인 이민에 대한 미시적 고찰 -경주읍 서경사(慶州邑西慶寺)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10	眞杉侑里	立命館大	明治末期群馬県における私的売春営業の構造
11	尹恩慧	東西大	부산 방문 일본인의 관광 유형에 대한 고찰
12	小口瑛子	東京大	住民の選択と文化の再構成 -カンボジア-農村における若年層のライフスタイルの変容-
13	藤川美代子	神奈川大	水上の移動生活を支える陸上の親族ネットワーク -中国福建省南部の水上居民「建家船漁民」を例に-

#### 소장 동정 (1월~5월)

1/14	KBS 국제방송(일본어) 공로명 전 외무장관 초청 대담
1/18	장제국 총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등과 함께 벵소 코로 주한일본대사 초청으로 일본대사관에서 신년 간담회
2/7	KBS 국제방송(일본어) 벵소 코로 주한일본대사 초청 대담
2/13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으로서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 예방, 간담
2/24	한일협력위 이사로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일본 국회의원단과 간담
2/25	일본대사 주최 만찬
2/28	동아일보 시론 게재
3월	한일협력위원회 계간지『韓日協力』논문 게재
3/28	역사문화살롱 특강
4/22	채널A '18시 뉴스' 출연
4/24	채널A '황호택의 눈을 떠요' 프로그램 출연
4/25	아리랑TV 뉴스 출연
5월	세종대 세종연구원 국가정책 전문 계간지『Global Affairs』 2013년 봄호 논문 게재

#### 주요 일정 (3월~6월)

3/21	일본연구센터 제1회 월례연구회 와카미야 요시부미(전 아사히신문 주필·동서대 석좌교수) 초청 강연
5/2	일본연구센터 제2회 월례연구회 무토 마사토시(전 주한 일본대사·동서대 석좌교수) 초청 강연
5/13	제7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6/29	한일차세대학술포럼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방문자 (1월~6월)

##### 일본연구센터 부산본부

1/15	이마무라 마사하루 학교법인 리츠메이칸 총합기획부장 외 7명
2/6	사쿠라이 토시미치 다이쇼대학 교학지원부 학무지원과
2/20	사와다 아키코 리츠메이칸대학 교학부 교직교육과 외 3명
3/18	하코다 테츠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6/17	쿠라이 타카시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총괄공사 외 3명

#### 기증도서 (3월~4월)

3/18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아시아리뷰』, 2012년
4/17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코리아연구』 제4호, 2013년